완주군, 장애등급제 사업 선정

8000만원 지원받아 4월~10월 야간순회방문 · 보행훈련서비스 등 시행

완주군은 2017년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2015~2017년)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고, 군단위 지자체로는 완주군이 처음이다.

이에 완주군은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복지허브화 읍·면과 연계, 민간서비스를 지원받고 싶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비스대상은 신규 및 등록 장애인 200여명이다.

주요 사업은 ▲야간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이동불편 시각장애인에게 체계적인 보행법 훈련으로 독립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행훈련서비스이다.

또한 ▲응급상황시 대처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에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는 응급안전서비스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3차 시범사업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신규서비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년 연속 시범사업에 참여해 1억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전국 최우수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 3,3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군, '망태버섯' 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

군 농림영농법인-머쉬타운조합, 협약 체결… 무주농기센터, 재배기술 교육 진행

무주군은 망태버섯을 신규 특화작목으로 연구·육성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에는 무주군 농림영농법인(대표 권영길)과 머쉬타운조합(대표 유수기)이 협약을 맺었으며 무주군 농업기술센터가 망태버섯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는 △올바른 종균 접종 요령을 비롯한 △접종 후 재배관리 요령, 그리고 △버섯재배사 관리 요령 등 재배 기술에 관한 내용들이 공유됐다.

농업인 유해옥 씨(58세)는 "교육을 들으며 맛과 식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혈당수치를 낮추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등의 기능이 있는 망태버섯의 가치와 상품성에 매료됐다"며 "남은 교육에도 참가를 해서 재배성공 가능성을 확인받고 싶다"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림영농법인은 2016년 12월 구성(27명의 농업인)된 단체로, 향후 망태버섯의 생산과 출하와 가공, 수출 등을 주도하게 되며, 머쉬타운조합에서는 망태버섯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이장원 연구개발 담당은 "대한민국 최고의 버섯을 재배해온 기술과 농업인들의 협업경영이 우리 무주를 망태버섯 주산지로 키워 농가소득을 높일 것"이라며 "무주군에서는 망태버섯 식재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농가중심의 현장실증교육을 주도해 새로운 특화작목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 320-2076~8)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우수관광자원 해외에 홍보

군, 전북 SNS 관광기자단 초청 팸투어 진행

진안군이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진안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SNS를 통해 홍보하고자 '전북 SNS 관광기자단' 30여명을 초청하여 마이산, 가위박물관, 진안고원 치유 숲 등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번 팸투어는 전북도 토탈관광 '한국체험 1번지'와 연계하여 해외 관광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SNS관광기자단을 초청해 진안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마이산을 탐방하고, 세계 희귀 가위 1,500여점이 전시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가위박물관 관람 후,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애칭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힐링하는 체험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 홍보마케팅이 중요하다"며 "이번 팸투어를 통해 기자단이 보고 체험한 진안고원의 우수한 관광콘텐츠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해 외국어로 SNS에 올림으로써 각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영희 장수 부군수, 재난안전 대응 읍면장 영상회의 개최

장수군 한영희 장수부군수는 부군수실에서 읍면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영상회의에서는 부군수실에서 행정 전산망을 통해 AI·구제역·산불·재난안전분야에 대해 대응계획 및 읍·면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업무협업을 극대화 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추진대책과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또한 영상회의에서 한영희 부군수는 "AI·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 예방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축산차량과 시설의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고, 또, "봄철 산불예방강조, 안전신문고 활성화 및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를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살고 싶은 마을 우리가 만들어요

진안군, 클린하우스 청결 · 주민 건강지킴이 발대식

진안군은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진안군 클린하우스 청결·주민건강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64명의 지킴이들에게 쓰레기 3NO운동 홍보와 계도활동, 마을에 설치된 클린하우스의 청결유지 관리,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사업 등 지킴이 임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천결의를 다졌다. 또한, 앞으로 실천해가야 할 역할 등에 대한 소양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군비 6,900만원을 확보, 지킴이 64명을 채용하고 우선적으로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64개 마을에 1명씩 지킴이가 배치된다. 이로써 쓰레기 3NO운동 추진은 물론 주민건강증진 사업도 함께 실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환경을 통해 머물고 싶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날 이항로 진안군수는 "마을의 건강 지킴이가 진안고원의 환경파수꾼이 되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 건강증진 사업에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와푸축제 '음식&체험' 아이디어 공모전

완주군, 3월15일까지 진행

완주군은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7회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와일드 음식&체험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와푸축제 대표프로그램인 와일드 음식과 체험을 주제로 진행되며, 평소 접하지 못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잊혀져 가는 독특한 야생 음식과 체험이다.

지난해 와푸축제에서는 개구리·메뚜기구이, 꿀벌애벌레, 감자삼굿, 황토닭진흙구이, 계란껍질밥, 맨손물고기잡기, 밀떡&가재구이 등의 와일드 음식과 체험이 운영됐다.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1점을 포함 총1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축제상품권 및 전북투어패스카드 등 총110만원 상당의 시상을 하고 축제장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공모는 3월15일까지 진행되고, 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우편, 이메일(amimo3@korea.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신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署, 학교주변 안전망 구축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무주경찰서는 신학기 초 스쿨존 및 우범지역에 대한 세밀한 안전진단과 함께 체계적인 학교주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경찰서장, 무주교육지원청장, 각 초등학교장, 학부모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주변 공동체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등교시간대에는 스쿨존, 그 외 시간대에는 학교주변 안전진단 및 환경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완주군립고산도서관, 4월~6월 무료 독서 · 문화프로그램 운영

완주군립고산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무료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주말 가족 프로그램으로 아동관련도서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지적·예술적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엄마랑 떠나는 동화여행'을 준비했다.

학생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이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초등독서논술'을 운영한다.

또한 고산도서관 테마인 '다문화, 농업' 도서 관련 프로그램으로 지역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접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한국어도서와 동일한 내용의 다문화도서, 여러 나라의 다문화도서 등을 학교에 전시하고, 예비 농업인들을 위해 도서관에 순우리말 농업용어들도 전시할 예정이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은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독서에 대한 동기 부여와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서관 기반시설을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할 것"이라 말했다.

참가 접수는 27일부터 선착순이며, 수업내용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산도서관(290-2648)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lib.wan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군체육회장배 당구대회 개최

제3회 무주군체육회장배 당구대회가 무주읍 OK당구장과 투투당구장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체육회와 무주군당구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당구를 생활체육으로 보급·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개회식에는 황정수 군수(무주군체육회장)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그리고 무주군당구협회 권대용 회장을 비롯한 선수 등 50여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 출신(적상면) 국내 당구 3쿠션(여) 랭킹 1위 이신영 선수(경기도 당구연맹 소속)가 시범경기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황정수 군수는 "이신영 선수 덕분에 대회가 훨씬 알차진 느낌"이라며 앞으로도 이신영 선수의 경기를 응원하고 앞날을 축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대회를 통해 당구의 매력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 전했다.

무주군에는 현재 2개 클럽에서 40여명의 동호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무주군체육회장배 당구대회 등을 통해 우의를 다지며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